## 2015 3.15 사순 제 4 주일

**제 1 독서** : **역대기하** 36,14-16.19-23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와 해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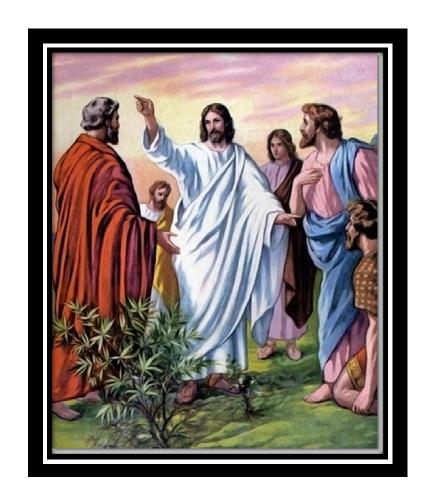
주님의 분노와 자비가 드러난다. >

제 2 독서 : 에페소 2,4-10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여러분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 음 : 요 한 3,14-21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사순 제 4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한번 우리의 일상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목을 하면서 신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나 형상에

대해서 각자가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을 그대로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께 "과연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가?" 하고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틀릴 수가 있습 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형상을 찾고 . 그 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서공부를 해야하고, 또 그 성서를 해석해 주는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 형상은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의 종 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분은 들어 주셔야 나에게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는것은 우리의 종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그분의 아들 딸 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하느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꼭 들어 주어야 하는 분으로 착각하고 그분을 믿고 있습 니다. 우리가 오늘 제 1 독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하여 무척 언짢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된 것은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탈출기의 그 때로부터 700 년 거의 7 세기가 지나간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이 역정을 내신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사십년동안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못된 일을 하였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 다만 그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느님을 너의 생각대로 <mark>믿지말고 내가 지시한대로 따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다.</mark>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과연 십계명을 내 마음속에 갖고살고 있는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 한국에서 보면 신자들이 점쟁이를 찾아 갑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때에 그런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님에 대한 형상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좀 하고 싶어서, 신자라 하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느님은 자비가 풍성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아니면 나 나름대로 만들어 낸 나의 우상 을 사랑하고 있는지 ?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 부일까? 건강일까? 자식들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하느님인가?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뱀의 형상이 들어 올려 질때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말을 듣고 구리뱀을 보았을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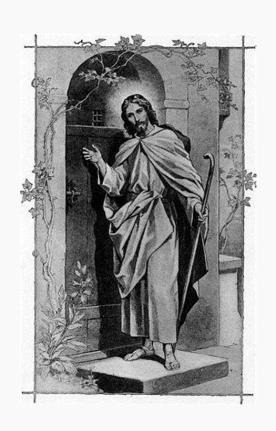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데 제 2 독서로 다시 가보면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들어서 받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 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실천 하였을 때 에 바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들어서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 들은 것이 이루어 질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 하며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해 줄때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살인하지 마라! 라는 계명 안에는 남에게 대해서 헐뜯고, 판단하는 것도 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을 듣고 내가 비록 누가 밉고, 또 그의 단점이 있더라도, 내 이웃과 그 잘못된 것을 나누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알렐루야! 아멘! 이 아니라 바로 내 일상 생활 에서 그것이 이루어 질때에, 바로 내 믿음이 결정지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지요. 남의 얘기를 하다보면 정신 없습니다. 신이나서. 남들이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계속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 니다. 계속적으로 좋을텐데 허탈하지요.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을 때. 내가 내안으로 돌아 왔을 때에 나는 허탈합니다. 그렇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의 장점을 말하고 났을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제가 < 이 세상에 이런일이> 라는 프로그램을 이따금 봅니다. 어쩌다 보게 되면 "나도 정신 좀 차려야겠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 하고 자책하며 용기가 생깁니다. 나도 할수 있어! 믿음!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이 확실해 지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 이루어. 질때에 바로 내 믿음이 확인이 되는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재미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복음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바로 심판이 내려진

다는 말씀이십니다. 나를 믿지않는, 예수님을 믿지않는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은 변화하지를 않는다는 것 입니다. 자기자리를 고수하고 자기가 잘 났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신앙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안짓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성하고 그 암흑의 세상에서 빛을 향하여 꾸준히 걸어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믿음은 바로 빛의 희망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빛을 향하여 계속 걸어 나갔을 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와 해방으로 주님의 분노와 자비가 드러난다.> 역대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36,14-16.19-23

그 무렵 14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15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19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20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21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일흔 해를 채울 것이다."

22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일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23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시편 137(136).1-2.3.4-5.6(◎ 6 ㄴㄹ)

-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을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여러분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2,4-10

형제 여러분, 4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5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6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7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모든 시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

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9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3.16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4-21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